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레위기의 정결법(레 11-15)을 중심으로*

김선종(정음중앙교회)

1. 머리말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인류는 충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염병의 전 지역 확산으로 실제적인 삶의 양태가 코로나 전과 이후로 급격하게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삶의 새로운 기준이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단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기원후 2세기 안토니우스 혹은 갈렌 페스트로부터 중세의 흑사병에 걸쳐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등 주

* 이 글은 2022년 10월 29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51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논찬을 맡아 주신 김한성 박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기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왔다.¹ 단지 새롭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앞으로도 전염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극의 시대에 전염병의 기원과 진단과 해결을 위하여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단지 신학과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2020년 이후 학문의 각 영역과 기관에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과 학교의 존망 앞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답은 과거 역사를 성찰하고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관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다.²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에게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하며 예배에 대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신앙인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대다수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치료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예언자의 예지력이나 정치인의 정견보다 과학자의 직관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³ 과학자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은 코로나 확진자의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

-
- 1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는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김우영 역), (서울: 이산, 2005). 원제는 W. H. McNeill,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Doubleday, 1976);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제효영 역), (서울: 커넥팅, 2020). 원제는 M. Honigsbaum, *The Pandemic Century: A Global History of Contagion from Spanish Flu to Covid-19* (Cambridge, MA: Penguin, 2020) 등을 보라.
 - 2 강준호 외 12명, 『팬데믹 너머 대학의 미래를 묻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8. 가톨릭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팬데믹과 한국가톨릭교회』 (서울: 기쁜소식, 2020)를 보라.
 - 3 기초과학연구원 (IBS), 『코로나 사이언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서울: 동아시아, 2021), 7.

방역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거창한 분석 뒤에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이다.⁴ 과학자들의 현실 인식과 태도에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도 드러나지만, 과학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근대의 과학만능주의의 신화도 밑바닥에 깔려 있다. 17세기 천재 과학자들을 낳은 ‘천재의 세기’⁵의 부산물을 후대가 뼈아프게 겪고 있지 않은가?

종교인은 과학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적인 주장이 아니다. 질병은 단지 병의 영역일 뿐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병에는 병리학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이고 신학적 차원도 존재한다.⁶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지위와 역할은 탈종교 시대 이전과 이후에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탈종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전까지 전염병 시대는 교회의 호황기였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 전염병은 오직 기도와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우세한 성직의 황금기였다.⁷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탈종교 시대에 기도와 믿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기독교 내부의 당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학과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발발 이후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구약신학의 분야에서는 전염병이라는

4 윗글, 221-223.

5 A. N.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역), (서울: 서광사, 1990)의 제3장의 제목 ‘천재의 세기’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원제는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26).

6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 (2006), 124-127.

7 D. Hamidović, *Les racines bibliques de l'imaginaire des pandémies: Des plaies d'Égyptes aux coronavirus* (Paris: Bayard, 2020), 128.

날말이 등장하는 본문을 연구하기도 했고.⁸ 구약 신학의 과제를 감염병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⁹ 이 글에서는 레위기의 정결법(레 11-15) 안에 있는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착안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에 논하도록 하겠다. 쿤란문서 등 중간기 문학과 신약에 나타나는 정결법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¹⁰

2. 레위기 정결법의 고찰에 대한 정당성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와 도덕을 담고 있는 레위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산물로 평가되는 코로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레위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1-7장),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임직하고 안내서에 따라 제사하며(8-10장), 제사라는 기준에 합당한 의식주 생활을 규정하고(11-15장),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오염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16장). 후반부의 성결법전(17-26장)에서는 확장된 성소인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종교의 가르침과 사회 규범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제사장 문서(P)에 해당하는 레위기의 제사법은 같은 문서에 해당하는 첫째 창조 이야기(창 1:1-2:4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사로 유지하게 하고, 이러한 일을 제사장이 백성과 함께 담

8 김지찬, 『성경과 팬데믹: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9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16-256.

10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Ch. Grappe, “Jésus et l’impureté”. *RHPR* 84 (2004), 393-417; 이윤경, “쿤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34 (2009), 144-162; 이윤경, “쿤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 149 (2010), 41-63 등을 보라.

당해야 할 것을 말한다. 상징적인 제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¹¹ 사실 창세기의 첫 창조 이야기는 이미 제의 언어와 제의를 통한 찬미로 이루어져 있다.¹² 이러한 제사장의 신학과 신념은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확고한 것임으로 깨어진 질서가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것을 제사장의 주요 임무로 규정함으로써(레 10:10), 거룩함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창조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이 음식물을 먹는 세밀한 분야와 사람의 은밀한 성생활 까지 규정하는 종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창조 질서를 세속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레위기의 이념은 구체적인 삶을 규정하는 성결법전에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안식년 규정에서 안식년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창조 원리를 역사에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¹³ 레위기 안에서 이 글은 특별히 정결법(11-15장)과 특히 그 안에 있는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제(13-14장)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전승을 담고 있는 정결법이 오늘날 코로나 19의 신학과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에 따라 정결법이 코로나 재앙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유용한가에 대한 연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¹⁴

11 F. H. Gorman, *The Ideology of Ritual: Space, Time, and Status in the Priestly Theology* (JSOTS 91; Sheffield: JSOT Press, 1990), 39-60.

12 I. Gruenwald, *Rituals and Ritual Theory in Ancient Israel*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107-111.

13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회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95-117.

14 M.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6은 정결법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다음에 a. 출산, 여성, 두 가지 성의 어린이들의 출생(12장), b. 심한 피부병, 진단(13장), b’. 심한 피부병, 정화(14장), a’. 생산, 두 가지 성의 성인의 성기 분비물(15장)의 대칭 구조로 분석한다.

1) 정결법의 수신인, 진영과 팬데믹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령하는 법의 수신인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수신인이 모세인 경우(1:1 등), 아론인 경우(10:8-11), 모세와 아론인 경우(11:1), 모세와 아론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인 경우(8:31),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경우(21:24)이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신인이 모세와 아론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결법이 유일하다(11:1; 13:1; 14:33; 15:1). 또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전해 받은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은 신학과 교회의 차원. 제사장 규범이자 회중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정결법은 신학에, 회중은 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의 정결법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의 문제와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피부병 환자의 부정함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본문이다. 물론 레위기 13-14장의 피부병 환자의 발병과 백성이 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진영을 전염에서 보호하려고 의도할 때 피부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국지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각각의 사람을 제사장이 돌보는 것과 관련된다.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팬데믹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레위기에서 피부병으로 인한 전염은 개인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국지적인 현상이었지만, 당시 구약 주변 세계에서도 정결 예식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부병에 발병과 해결책은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종의 예비적인 팬데믹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5 T. Kazen, *Issues of Impurity in Early Judaism* (Coniectanea Biblica New Testament Series 45;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26-27.

2) 제의적 정결과 윤리적 정결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에 큰 혼란이 있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국가의 책임·의무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¹⁶ 미국에서는 아시아 사람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병리학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고, 이민 정책을 비롯한 사회 구조의 문제와 관련 있다.¹⁷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의 위기와 여러 고통은 질병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부정 편향과 타인-정죄 도덕 감정, 선동, 휴리스틱과 인지 편향을 통해 더욱 악화된다.¹⁸ 코로나 확진자에게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의도적이거나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구약 주변 세계에서 전해 내려온 정결과 부정의 범주인 제의적 정결(ritual impurity)과 윤리적 정결(moral impurity)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

주로 레위기 11-15장과 민수기 19장, 또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정결법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연구는 더글라스(Douglas), 뉴스너(Newsner), 밀그롬(Milgrom), 프라이머-켄스키(Frymer-Kensky), 라이트(Wright), 클로웬스(Klawans) 등이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기 11-15장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이 윤리와 도덕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실에 동의한다.¹⁹ 다시 말해 레위기 11-15장은 제의적 정결로

16 정종구·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2020), 103-131.

17 배정환,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 (2021), 183-208.

18 김학철,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양학: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3 (2022), 379.

19 연구사를 위해서는 S. Haber, *They Shall Purify Themselves?: Essays on Purity in Early Judaism*

서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유비적으로 살펴 보는 13-14장의 심한 피부병 환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정결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단락에 '죄'라는 낱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정결 예식에서도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절차가 나오지도 않는다. 왕대일의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공동체의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려야 한다는 주문에는 우선 병이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는 염려가 깔려있다.”와 최순진의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피해자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의 전염병 역시 궁극적으로는 죄와 심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는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⁰ 기본적으로 레위기 정결법에 나오는 부정함은 죄가 아니라, 죽음과 성과 관련된다.²¹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정결함, 죽음과 관련된 것이 부정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부병 환자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할 때, 정결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키페르(כִּיפֶר)는 속죄가 아니라 정결로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다.²² 반면에 성결법전과 예언서에 나오는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9-29; J.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42를 보라. 이들 이전의 20세기 초반의 학자들(Hoffmann, Büchler)과 중세 랍비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S. Haber, *They Shall Purify Themselves?*, 10-12를 보라.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기록”, 『구약논단』 38 (2010), 10-32도 보라.

- 20 왕대일, “구원과 치유-성서적, 신학적 이해: 부정(不淨)함에서 거룩함까지, 레위기 13-14장의 경우”, 『신학과세계』 54 (2005), 103; 최순진, “전염병에 대한 구약성경적 고찰”,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74-75.
- 21 A. Marx, “L'impureté selon P. Une lecture théologique”, *Bib* 82 (2001), 363-384.
- 22 J. Milgrom, “Sin-Offering, or Purification-Offering?”, *VT* 21 (1971), 237-239; idem,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254-256;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כִּיפֶר(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 (2005), 31-52; 노세영, “Kipper(כִּיפֶר)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개정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7-29;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속죄제(כִּיפֶר)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 (2016), 10-37.

부정함은 윤리적 부정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성범죄나 우상숭배를 저지르면 제사장 신학에 따라 사람뿐 아니라(레 18:24),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레 18:25; 겔 36:17)과 성소(레 20:3; 겔 5:11)를 부정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레 18: 20).²³

정결과 부정에 대하여 더글라스는 모든 것은 사회 체계와 질서에 의하여 있어야 할 자리가 규정되는데, 부정함은 자리에서의 일탈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²⁴ 정결함과 부정함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시키는 행위와 사회 제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결과 부정이 사람, 사물, 행동에 내재 되어 있는 본질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체계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의 구분을 유지함으로써 우주의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더글라스의 이러한 연구는 단지 인류학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종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통한 분석으로 아발로(Avalos)는 정결함의 체계가 사회-경제적인 차별이 작용한다고 주장하게 된다.²⁵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 부정함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곧 성행위, 우상숭배, 또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은 은유적 부정함에 해당한다고 뉴스너는 주장한다.²⁶ 그러나 비유적인 부정함이라는 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의 해결은 쉽고 단순한 해결책이며, 신학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윤리적 부정함을 단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식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현상, 다시 말해 창조와 윤리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23 김선중, “성결법전의 땅”, 『Canon&Culture』 5 (2011), 117-144.

24 M.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10-12, 35.

25 홍성혁, 원글, 142에서 재인용.

26 J. Neusner,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Leiden: Brill, 1973), 108.

더글라스의 한계에 대해 라이트는 제의적 부정함은 사람의 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지되는 부정함’(prohibited impurity)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허용되는 부정함’(permitted impurity) 또는 ‘용인되는 부정함’(tolerated impur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²⁷ 이 또한 만족스러운 대안은 아니다. 출산이나 출혈이나 피부병 등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함을 용인할 수 있다고 표현한 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함 역시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심각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밀그롬과 프라이머-켄스키는 부정함이 문제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정함이 성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제의적인 부정함조차 용인할 수 있는 부정함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은 성소와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⁸ 그러나 그들은 성결법전에 나오는 윤리적 부정함을 체계화하지 않고, 오염과 더럽힘에 있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²⁹ 만약 이러한 부정함이 땅을 대표로 하는 피조 세계에 끼치는 기능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제기했듯이 악의 문제가 잔존해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시면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다면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을 내

27 D. P. Wright, “Two Types of Impurity in the Priestly Writings of the Bible”, *Kereth* 9 (1988), 181-182; idem, “Unclean and Clean (OT)”, *ABD* 6, 729-730.

28 J. Milgrom, 윗글(1991), 258-259; T. Frymer-Kensky,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rael”, C. L. Myers and M. O’Connor (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406-412는 포로와 홍수로 성소의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

29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S. Haber, 윗글, 21을 보라.

포하는 것이다.³⁰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창조와 선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은 하나님께 기원한다. 하나님은 정신 현상으로서의 절대정신도, 우주 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기계적 신도 아니다. 신학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3.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혼돈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피부병 환자를 격리하는 조치와 치유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다루는 레위기 13-14장에는 피부병에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구약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병의 원인을 사람이 지은 죄에 돌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9장에서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당사자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욥이 피부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세 친구는 욥이 지었을 죄로 추정하고 있지만, 욥기는 욥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함으로써(1:1, 8; 2:3) 욥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의 결과가 아님을 처음부터 명시한다. 레위기 정결법은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피부병과 부정함이 낳는 결과와 병이 가져온 현실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다.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30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 (신준호, 안희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54-123. 원제는 W.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확실하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아노말리(anomaly)에 해당한다.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과 가설에서 벗어나는 차원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판넨베르크(Pannenberg)는 이것을 우연(Zufall)과 사건의 우발성(Kontingenz)으로 표현한다.³¹

레위기 13-14장의 피부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병의 원인이거나 병을 앓는 사람을 격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병에서 나온 사람이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정결법을 제정한 목표가 부정함에서 정결함,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회복이라는 사실은 본문의 짜임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²

사람 피부에 번지는 차라앗 (레 13:1-46)

사물(옷감이나 가죽)에 번지는 차라앗 (레 13:47-59)

차라앗에서 치료된 사람을 위한 정결예식 (레 14:1-32)

사물(건물의 벽)에 번지는 차라앗 (레 14:33-53)

사람과 사물에 번지는 차라앗 (레 14:54-57)

1) 살갓에 생긴 피부병(레 13:1-59)

레위기 13장은 살갓에 생긴 피부병 환자와 옷과 천에 생긴 곰팡이 문제를 다룬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심한 피부병에는 종기, 부스럼, 반점, 뽀루지, 얼룩, 감염된 화상 등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것들을 총칭하는 히브리 낱말 ‘차라아트(חַרְאֵת)’를 ‘나병’으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악성 피부병’으로 옮긴다. 나병이 적절한 번역은 아닌데,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나병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이

31 윗글, 137.

32 왕대일, 윗글, 96, 각주 10.

고 한센병의 발병 역사는 레위기의 시대 이후이기 때문이다.³³ ‘악성 피부병’이라는 번역도 피부병에 악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기에, 이 글에서는 ‘심한 피부병’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개역개정』은 불에 덴 자리와 수염에 난 환부와 옷과 천에 생긴 곰팡이를 형식 일치의 번역원칙에 따라 모두 ‘나병’으로 번역하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처럼 옷이나 천에 생기는 것은 ‘곰팡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심한 피부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피부병 환자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³⁴ 사해 북서쪽 쿨란 유적지 근처 4번 동굴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기록된 다메섹 문서에 속하는 두 개의 단편적인 필사본(4Q269 7 + 4Q266 6 i)에서 발췌한 구절을 통해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추적할 수 있다.³⁵ 구약성경은 유일한 치료자는 하나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제사장은 단지 전염의 성질과 상태를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진영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의 전문가이다.³⁶ 제사장이 환처를 관찰하고 사람이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이것은 환자를 보호하고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데(13:45-46),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심한 피부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위험이 내

33 J. Milgrom, *읽글*(1991), 816-824; J.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5), 187-189; 왕대일, *읽글*, 95, 각주 7; 홍성혁, *읽글*, 128, 각주 8.

34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97.

35 D. Hamidović, *읽글*, 92-94.

36 사무엘 E. 발렌틴, 『레위기』, *현대성서주석*, (조용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172. 원제는 S. E. Balentine, *Levitic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재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이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전염 될 위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관심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3주 동안 피부병 환자를 관찰한다. 살갓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털이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동안 지켜본다. 일주일 동안 상태가 그대로이면 다시 일주일 동안 환자를 백성으로부터 격리한다. 다시 일주일 뒤에 살펴보아 병이 사라지면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언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한다. 단순한 뽀루지로 판명될 경우에는 옷을 빨아 입으면 된다. 이것은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옷이나 천에 곰팡이가 생기면 일주일 동안 관찰한다. 곰팡이가 퍼지면 불태우고, 그렇지 않으면 옷을 빨면 된다. 곰팡이 자국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 레위기는 옷(13:47-59)과 집에 생긴 곰팡이(14:33-57)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옷과 집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결법은 사람의 생활과 의생활과 주생활에서의 정결함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2) 죽음에서 생명으로(레 14:1-57)

레위기 14장은 3주 동안 제사장이 피부병 환자를 관찰한 다음에 피부병이 퍼지지 않아서 나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는 절차를 다룬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정한 새 두 마리,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히속(우슬초) 한 포기를

37 J. Milgrom, 윗글(1991), 275.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다음으로 새 한 마리를 죽여 질그릇에 담게 하고, 살아 있는 새를 죽인 새의 피에 담근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될 사람에게 피를 일곱 번 뿌린 다음에 정하다고 선언한다. 죽은 새의 피를 묻힌 살아 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낸다. 새는 16장에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아사셀 속죄 염소처럼 사람의 병과 부정함을 지니고 날아간다.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하고 진에 들어와 1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14:8). 일곱째 날에는 털을 모두 민다. 깨끗하게 될 사람은 팔일째 날에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흠 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3/10에바, 기름 한 록을 가져온다. 제사장은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기름 0.3리터와 함께 요제로 흔들어 바친다(14:12). 숫양 한 마리를 거룩한 곳에서 잡은 다음에 제사장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속건제물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14:14, 17, 25, 28; 8:24), 이것은 부정했던 사람의 몸의 끝부분에 피를 발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 격리했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의 일부를 왼쪽 손바닥에 붓고(14:15-16)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야웨 앞에 일곱 번 번 뿌린다.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남아 있는 기름을 바른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환자의 머리에 바른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제사장과 연합하여 일반인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다. 피와 물을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칠 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제의적으로 재연하는 것이다.³⁸ 물로 씻는 것은 마치 부

38 사무엘 E. 발렌틴, 윗글, 180.

정함이 문자적인 더러움의 의미로 더러운 물질이 제거되는 것과 같고,³⁹ 피를 바르는 것은 일상과 거룩함의 경계 사이로 통과시키는 통과 제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⁴⁰

심한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심한 피부병 환자는 죄인이 아니고, 단지 죽음에 노출되어 부정할 따름이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넘어갈 때 정결제의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린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속죄제는 정결제로 보아야 하고, '키페르(כִּפֶּר)'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제사 또는 보상 제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레위기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 피해를 준 것으로 여겨 속건제를 드리게 한 것이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치유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의사의 치유 행위가 아닌, 일종의 자연 치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신뢰할 만한 도덕적 목적에 따라 질서가 정해져 있으며, 그 목적은 타협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⁴¹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⁴² 창조를 역사와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정결법을 통하여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리 중의 하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창조

39 T. Kazen, 윗글, 21.

40 F. H. Gorman, 윗글, 131-135.

41 월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역), (서울: IVP, 2020), 27. 원제는 W.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Eugene, OR: Wipf and Stock, 2020).

42 존 파이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조계광 역), (서울: 개혁된실천사, 2020), 38. 원제는 J. Peper,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Illinois: Crossway, 2020).

세계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다.⁴³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정결례와 관련하여 육체적으로 ‘만지다’와 ‘접촉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가(נגַּע)’(5:2 등)와 함께 정결법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음식, 짐승, 피, 피부병, 시체 등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접촉도 금한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정결한 사회 체계와 질서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결법은 결국 성소에서의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고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몸에 손을 대시고 접촉을 막지 않으신(막 1:40-45; 5:24-43) 정결법의 범법자이고, 바울은 사람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전 6:19; 고후 6:16).

4. 욕: 피부병 환자의 삶과 병에 대한 인식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이웃에게 병을 전염하지 않게 하기 위해 7일 주기로 격리되어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오늘날 표현으로) 자신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환자가 ‘정결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해 주었다. 본문은 단지 발병과 병의 지속, 또는 발병과 회복의 경우를 말하고, 피부병에 걸린 환자의 반응이나 환자와 가족이 겪을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는 언

43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이지혜 역), (서울: 비아토르, 2020), 66. 원제는 T. Wright, *God and the Pandemic* (London: SPCK Publishing, 2020).

급하지 않는다. 지젝(Zizek)의 표현을 따르면 당시 위기 역시 오늘날 코로나 위기와 같이 의료 위기, 경제 위기, 심리적 위기였을 것이다.⁴⁴ 피부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는 동안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 병에 걸린 다음 첫째 날은 진 밖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환자의 삶은 대략 원시적 혼돈의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제한되어야 한다.⁴⁵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고⁴⁶ 악수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지금의 연대 형태임이 확실하지만,⁴⁷ 강요된 비 활동의 명백한 역설 또한 존재한다.⁴⁸ 비록 축출이 목적이 아니라, 격리를 통한 궁극적인 복귀가 최종적인 지향점이지만,⁴⁹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환자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방법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다.⁵⁰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이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정경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면 성경의 내용을 변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과거의 독자가 과거의 저자에게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진술하고 기록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통적인 역사비평의 관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과 독

44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역), (서울: 북하우스, 2020), 113. 원제는 S. Žiž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New York - London: OR Books, 2020).

45 사무엘 E. 발렌틴, 윗글, 178-179.

46 존 레녹스,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70. 원제는 J. C. Lennox,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London: The Good Book Company, 2020).

47 슬라보예 지젝, 윗글, 99, 170.

48 슬라보예 지젝, 윗글, 35.

49 J. Klawans, 윗글, 26.

50 사무엘 E. 발렌틴, 윗글, 177.

자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때로는 여러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욥기는 오경의 정결법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문제를 제기한다.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는 침묵과 구멍을 메꾼다. 역사비평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에 독자들은 율법, 이야기, 시, 예언 등 문학양식에 따라 성경을 독자적으로, 또는 독특한 양식 안에서만 고립되어 성경을 읽었지만, 본문 사이를 오가는 성경 읽기(intertextual interpretation)를 통하여 성경 내의 해석과 상호 보완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⁵¹ 비록 오늘날 주석가들이 레위기의 정결법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함은 혐오, 두려움, 정의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치료와 공동체의 보건 위생을 위한 것이었다. 정결법은 환자가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른 질병과 치유에는 관심이 없다. 몸의 질병과 부정함만 말하지, 마음의 질병과 부정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마음이 부정해지고, 마귀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콰란 등 중간기 시대 이후에나 나타난다.⁵² 레위기에서 진영과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철저히 저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이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산모나 원하지 않게 피부병에 걸린 환자, 실수로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는 당사자와 후대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욥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대변한다.

51 법과 이야기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김선중, “토라! 율법인가, 이야기인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정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64 (2011), 7-22를 보라.

52 위의 각주 9를 참고하라.

욥기의 프롤로그에서는 욥이 죄인이 아니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꾼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지만(욥 1:1, 8; 2:3), 욥의 세 친구는 집요하게 욥이 죄인이므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재산을 잃고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모두가 다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회개를 강요한다. 병이라는 현실에서 죄라는 원인을 추적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억울한 욥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외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사태는 불공평하다고 외쳐도 무방할 것이다.⁵³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불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철저히 죄와 병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다. 욥은 자신이 앓는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추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할 여력도 없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앞에 그는 그저 사는 것이 괴로울 뿐이었다(『새번역』, 10:1). 그렇다고 친구들과 타협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심한 피부병으로 격리되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피부병으로 인한 우울감 속에 빠져 있다.⁵⁴ 그러나 그는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로 치유되지 않았다. 욥기의 에필로그는 욥이 자녀를 다시 낳고, 재산을 두 배로 얻게 되었지만, 명시적으로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⁵⁵ 그가 치유되었다면 그토록 간절하게 요구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면, 질병의 고통을 지나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

53 사무엘 E. 발렌틴, 윗글, 190.

54 김선중, “욥과 멜랑콜리아: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욥 10:1상, 『새번역』)”, 『구약논단』 78 (2020), 8-36.

55 S. -J. Kim, “La maladie de Job (Jb 2,7b)”, *Cahiers bibliques* 48, *Foi et vie* 108 (2009), 80-94; 김선중, 『욥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367-369.

다는 사실이다(42:5).

세상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접촉은 경쟁과 도태와 차별의 시스템을 목인하고 옹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접촉은 이익이 아닌 삶을 확인하고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회와 신학이 가져야 할 접촉에 대한 관심은 죽음의 경계와 사회 안에 있는 차별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하고,⁵⁶ 비접촉에 대한 관심은 몸과 마음에 누적된 자신과 피조 세계와의 간격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현실로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나가는 일이다.

5. 맺음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신학이 재앙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교회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단체와 공동 대처해야 한다. 팬데믹은 신학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상호 작용한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⁵⁷ 소극적으로 보면 종교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하지만,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종교가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한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역사가 보여준 현실이다.⁵⁸

56 이서영, “비접촉의 시대에서 바라본 접촉의 의미: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예수와 나병 환자의 접촉을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에서 읽기”, 『신학사상』 191 (2020), 42.

57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211. 원제는 W. C. Smith, *Faith and Belief*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58 김용성,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 『장신논단』 53

건강한 신학을 위해서는 치밀한 독서와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과학이 사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도 치열한 논쟁과 사고를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신학은 책상머리에서의 연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신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 당면한 문제에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진지한 시도에서 창조력이 발현된다.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종교 전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영적으로 승화(spiritualization)되어 성전 파괴 이후의 신학과 교회의 현장에서도 과거의 종교 정신이 유지된 것과 같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져야만 유지되는 제사법과 정결법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종교 원리로 살아남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는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되고(계 8: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속죄 제물이라는 제사 용어로 설명된다. 이러한 유대교의 생존과 그리스도 교로의 연속성이 이어진 것은 성전 종교에서 책의 종교로 전환한 시도가 성공한 데에서 가능했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사람이 탐욕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를 파괴하여 피해가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차원에서 그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레위기의 정결법과 율기가 말하듯이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사건과 사고가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재앙의 시대에 교회는 교회 공동체와 온 누리를 대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이 주기적으로 7일마다 환자를 방문하여 자세히 관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빛 아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유라는 희망을 전

(2021), 295.

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 2세기 그리스도교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전염병이었다.⁵⁹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환자의 치유에 앞장서서 세상을 구원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팬데믹이 낳은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 가짜 뉴스, 편집증적 음모론, 인종차별주의⁶⁰ 등의 사탄의 세력에 맞서 피조 세계를 교구로 삼아 생명과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인 수와 재정회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편이 아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와 동기가 있는데, 예배와 정결의 실천은 창조 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정결법은 성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의 역사에 구현한다.

참고문헌

-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16-256.
 기초과학연구원(IBS), 『코로나 사이언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서울: 동아사이, 2021).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95-117.
 _____, “성결법전의 땅”, 『Canon&Culture』 5 (2011), 117-144.
 _____, “토라! 율법인가, 이야기인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정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64 (2011), 7-22.
 _____, “읍과 멜랑콜리아: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읍 10:1상, 『새번역』) -”, 『구약논단』 78 (2020), 8-36.

59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115-147. 원제는 R.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60 슬라보예 지젝, 윗글, 55.

- _____, 『욥기』(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김용성,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 『장신논단』 53 (2021), 277-302.
- 김지찬, 『성경과 팬데믹: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김학철,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양학: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3 (2022), 371-394.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קִפּוּר(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 (2005), 31-52.
- _____,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38 (2010), 10-32.
- _____, “Kipper(קִפּוּר)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개정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7-29.
-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원제 Stark, R.,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마크 호닉스바움,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제효영 역), (서울: 커넥팅, 2020). 원제 Honigsbaum, M., *The Pandemic Century: A Global History of Contagion from Spanish Flu to Covid-19* (Cambridge, MA: Penguin, 2020).
- 배정환,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 (2021), 183-208.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 (신준호, 안희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Pannenberg, W., *Systematische Theologie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사무엘 E. 발렌틴, 『레위기』, 현대성서주석, (조용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원제 Balentine, S. E., *Levitic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역), (서울: 북하우스, 2020). 원제 Žižek, S.,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New York - London: OR Books, 2020).
- 왕대일, “구원과 치유-성서적, 신학적 이해: 부정(不淨)함에서 거룩함까지, 레위기 13-14장의 경우”, 『신학과세계』 54 (2005), 90-111.
- 윌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역), (서울: IVP, 2020). 원제 Brueggemann, W., *Virus as a Summons to Faith* (Eugene, OR: Wipf and Stock,

2020).

-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김우영 역), (서울: 이산, 2005). 원제 McNeill, W. H.,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Doubleday, 1976).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원제 Smith, W. C., *Faith and Belief*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이서영, “비접촉의 시대에서 바라본 접촉의 의미: 마가복음 1장 40-45절의 예수와 나병 환자의 접촉을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에서 읽기”, 『신학사상』 191 (2020), 15-47.
- 이윤경, “쿠파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34 (2009), 144-162.
- _____, “쿠파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 149 (2010), 41-63.
- 정중구·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2020), 103-131.
- 정희경, “‘Kipper 행위’ 개념을 통해 본 속죄제(תּוֹבָחַת)의 이중적 기능연구에 대한 구조비평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 (2016), 10-37.
- 존 레녹스,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원제 Lennox, J. C.,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London: The Good Book Company, 2020).
- 존 파이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조계광 역), (서울: 개혁된실천사, 2020). 원제 Peper, J.,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Illinois: Crossway, 2020).
- 최순진, “전염병에 대한 구약성경적 고찰”,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72-95.
-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이지혜 역), (서울: 비아토르, 2020). 원제 Wright, T., *God and the Pandemic* (London: SPCK Publishing, 2020).
-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팬데믹과 한국가톨릭교회』 (서울: 기쁜소식, 2020).
-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 (2006), 124-146.
- 화이트헤드, A. N.,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역), (서울: 서광사, 1990). 원제 Whitehead, A. 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26).
-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 _____,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Frymer-Kensky, T., "Pollution, Purification, and Purgation in Biblical Israel", C. L. Myers and M. O'Connor (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99-410.
- Gorman, F. H., *The Ideology of Ritual: Space, Time, and Status in the Priestly Theology*, (JSOTS 91; Sheffield: JSOT Press, 1990).
- Grappe, Ch., "Jésus et l'impureté". *RHPR* 84 (2004), 393-417.
- Gruenwald, I., *Rituals and Ritual Theory in Ancient Israel*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Haber, S., *They Shall Purify Themselves?: Essays on Purity in Early Judaism*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 Hamidović, D., *Les racines bibliques de l'imaginaire des pandémies : Des plaies d'Égyptes aux coronavirus* (Paris: Bayard, 2020).
- Kazen, T., *Issues of Impurity in Early Judaism* (Coniectanea Biblica New Testament Series 45;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 Kim, S. -J., "La maladie de Job (Jb 2,7b)", *Cahiers bibliques* 48, *Foi et vie* 108 (2009), 80-94.
- Klawans, J.,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Marx, A., "L'impureté selon P. Une lecture théologique", *Bib* 82 (2001), 363-384.
- Milgrom, J., "Sin-Offering, or Purification-Offering?", *VT* 21 (1971), 237-239.
- _____,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 Neusner, J., *The Idea of Purity in Ancient Judaism* (Leiden: Brill, 1973).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 Wright, D. P., "Two Types of Impurity in the Priestly Writings of the Bible", *Kereth* 9 (1988), 180-193.
- _____, "Unclean and Clean (OT)", *ABD* 6, 729-741.

검색어

코로나 19, 정결법, 율, 창조 신학, 신학과 교회

[ABSTRACT]

Theology and Church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Laws on Ritual Purity (Leviticus 11-15)

Sun-Jong Kim

Jeongeup Joongang Presbyterian Church

Since the WHO declared pandemic on March 12, 2020, the hardships humanity has experienced in the past three years are another example of a recurring epidemic in human history. Diagnosing the challenging reality of dealing with the pandemic in the post-COVID era and trying to heal trauma in the process, this paper discusses what theology and the church should practice and proclaim in the light of the regulations of skin disease in Leviticus 13-14.

First of all, this article reflects the priestly theology maintaining a creative order, and envisages that laws on ritual purity having relations with the current pandemic functions to embody creative principles in history. In addition to the pain caused by the disea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this paper points out the cause of increasing pain through human negative cognitive bias and diagnoses that the additional pain occurred from the ignorance of the double dimension of ritual and moral impurity. Purity and impurity in Leviticus 11-15 are irrelevant to the problem of ethical and moral sin. In other words, there is no confession of sin in Leviticus 13-14 that deals with skin diseases belonging to ritual denial. Next, this article reveals the interests of the laws on ritual purity by analyzing the text of Leviticus 13-14. These laws focus not on

www.kci.go.kr

scientific tracking of the cause of skin diseases, but on coping with their consequences and reality that these diseases have brought. In particular, the cause of skin disease is not specified as sin, and attention is focused not only on isolation but on the return of the recovered person to his or her original place of life. The goal of enacting the laws on purity is to recover from impurity to purity, and from disorder to order. In addi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purity laws and presents a solution to overcome them based on Job's case. Although the ultimate goal of the purity laws is to recover patients, in reality, they had no choice but to wait until the priest declares their pur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s (theological concept of impurity) presented in the Bible and the reality of the reader.

Church and theology should overcome the boundaries of death and discrimination in society in relation to ritual impurity, recognize the gap between themselves and the created world in relation to ethical impurity, and fill it with the reality of God's new creation. The laws on ritual purity convey the hope of God's healing under God's creative order to those who are isolated from the camp and are in loneliness and despair, and present the church's mission to restore the health of human body and mind.

key words

Covid 19, Laws on Ritual Purity, Job, Creation Theology,
Theology and Church

투고일 : 2023년 01월 20일

심사일 : 2023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